

노인-영유아 심리적 변인을 통한 세대교류공간의 상호 연계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terconnectivity of Intergenerational Exchange Spaces Through Psychological Variables of the Elderly and Infants)

최지현*, 최연숙**

(Choi Ji Hyeon, Choi Yeon Suk)

요약

본 연구는 핵가족화 및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세대 간의 단절과 고립에 대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세대층인 노인과 영유아 간의 세대교류에 대한 필요성을 다루었다. 노인과 영유아의 관계 심리 요소 분석을 통해 세대교류와 관련된 공간 분석에 관한 연구로서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심각한 수준의 저출산과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사회에 대한 지속적이고 중장기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국외에서는 노인과 영유아의 관계 심리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세대 간 상호교류를 촉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활동과 세대 교류센터, 노유복합시설 등이 신체적, 사회적 발달과 더불어 심리적 안위 증진에 긍정적 영향이 입증되었고, 세대 간 단절을 예방하고, 선입견을 해소하는 등 사회계층 간의 이질적 문제를 해결하는 시도가 꾸준히 있어왔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국내의 건축학, 심리학, 간호학적 측면의 다양한 연계 논문을 바탕으로, 노인과 영유아의 심리적 특성과 함축된 속성을 분석하여 인간 상호적인 세대 간 관계 심리 측면의 일치되는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프로그램 및 공간의 관계성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세대교류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가족의 인식, 세대교류 공간을 활용 시 선호 프로그램 및 요구되는 공간 유형 등을 파악하였다. 더불어 국외 사례를 비교, 분석을 통해 향후 노인과 영유아의 세대 간 심리적 안위를 증진할 핵심요소를 추출하여 실행할 수 있을 방안을 제시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효과적인 세대교류 공간의 상호 연계성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 중심어 : 노인 ; 영유아 ; 심리학 ; 세대교류 ; 노유자시설

Abstract

This study addresses the necessity of intergenerational exchange between the elderly and infants as a response to the increasing isolation and disconnection among generations due to the rise of nuclear families and changes in social structures. By analyzing the psychological factors influenc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lderly and infants, this research explores the spatial aspects of intergenerational exchange. Given South Korea's serious low birth rate and rapidly aging society, this study aims to propose sustainable and long-term solutions. International studies have demonstrated that various programs, intergenerational exchange centers, and elderly-infant integrated facilities contribute positively to physical, social, and psychological well-being. These efforts have also helped prevent generational disconnection, break stereotypes, and address social disparities. Based on interdisciplinary research from architecture, psychology, and nursing, this study analyzes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underlying attributes of both elderly and infants to derive shared implications for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s. Furthermore, a surve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correlation between intergenerational programs and spaces, assessing social and familial perceptions of intergenerational exchange, preferred programs, and required spatial types. By comparing and analyzing international cases, this study extracts key elements essential for enhancing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both generations and presents feasible strategies. Ultimately, it aims to provide foundational data for establishing effective intergenerational spaces with strong interconnectivity.

■ keywords : Elderly ; Infants ; Psychology ; Intergenerational Exchange ; Elderly-Child-Disabled Facilities

I.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의 고령화 시대와 심각한 수준의 저출산에 직면해 있다. 이는 핵가족화, 사

* 정회원, 에이앤유디자인그룹

** 정회원, 대원대학교 간호학과

본 논문은 2024년 석사 학위논문 데이터를 활용하여 재구성한 것임

회 구조 변화에 세대 간의 단절, 고립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노인은 길어진 노년기에 따른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신체적, 사회적 문제뿐만 아니라 심리적 고립감을 경험하며, 영유아 측면에서 젊은 부모는 경제활동으로 인해 아동의 발달 시기에 적절히 개입하지 못하면서 심리적 적응과정에 어려움을 경험한다. 국외에서는 노인·영유아의 상호교류를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 활동, 노유자복합시설 등 다양한 공간을 통해 사회적, 신체 발달 등을 촉진하고 그 결과 변화되는 긍정적 심리 효과를 입증하며 사회계층의 이질성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각도의 시도가 있어왔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노인·영유아 교류에 대한 사회적 인식, 세대 간 교류의 필요성 등이 적극적인 실현에 제한이 있다. 또한 세대 간 교류 프로그램이 일시적이거나 상호교류를 고려한 공간이 부재하여 지속적인 효과를 얻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발표되었던 국내외 건축학, 심리학, 간호학적 측면의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노인·영유아의 통합적 돌봄을 실현하기 위해 요구되는 심리적 요소 분석을 통해 핵심 요소를 도출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사회적 인식의 차이, 선호 프로그램, 선호 및 공간 유형 등을 파악하여 비교, 분석함으로써 향후 국내 세대교류 공간에 대한 효과적인 세대교류 공간의 상호 연계성을 제안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년 내의 준공된 노유자시설 사례로 하며, 공간적 범위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과 어린이집이 복합된 공간으로 한정하였다. 내용적 범위로는 노인·영유아의 심리적 특성 및 속성을 이해하고 공통된 요소를 도출하고, 설문조사를 통하여 세대교류에 대한 사회 및 가족의 인식, 선호 프로그램, 선호 공간 유형 등을 파악하여 국내외의 사례를 함께 비교, 분석함으로써 효과적인 세대교류 공간의 상호 연계의 중요성을

제안한다. 끝으로 연구의 방법으로는 세대 간 교류, 세대 간 관계, 발달단계별 심리적 영향요인 등에 관한 선행 연구와 그 외 문헌 고찰 및 웹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공간유형 파악을 위해 사례 조사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II. 이론적 고찰

2.1 세대교류에 대한 고찰

(1) 세대교류 정의 및 필요성

‘세대교류’에 대해 쿠사노 아츠코(草野篤子)는 “아이, 청년, 중·고령 세대의 사람이 서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기술을 공유하고, 자신의 향상과 주변 사람들, 사회에 도움이 되는 건전한 지역 만들기를 실천하는 활동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활동의 주역이 되는 것이다”라고 정의하였다.* 미국에서는 청소년과 노인과의 의도적, 사회 정책적 그리고 교육적 동기부여라는 의미를 포함하는 1960년대 중반에 인터제너레이션(intergeneration)이란 개념이 사용되었다. 셸리 뉴먼(1970~1980)은 인터제너레이션의 개념을 “다른 세대의 사람들이 상호 협력하여 상부상조하는 것, 노인이 습득한 지혜와 예지, 사물에 대한 생각과 해석을 젊은 세대에게 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젊은 층과 노인의 생활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양 세대가 이익을 향유한다고 하는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정의한 바 있다. 이렇듯 세대교류는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널리 활용되는 개념은 아니지만, 서구에서는 다양한 분야와 학문적으로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 草野篤子, 秋山博介編, 現代のエスプリNO.444 インタージェネレーション: コミュニティを育てる世代間交流, 至文堂, 2004.

** 草野篤子, Ib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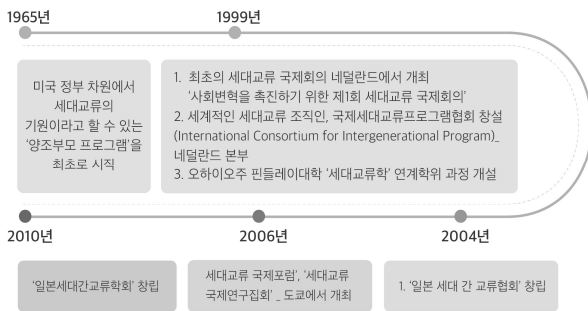


그림 1. 제안된 시스템의 구성도

(2) 세대교류의 구분

1) 세대교류 유형

세대교류 유형으로는 크게 직접교류, 간접교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상세 유형은 다음과 같다. 직접교류 중 기획교류는 운영자가 노인과 영유아의 교류를 위해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발생하는 교류로 아침 체조, 연간 행사를 통한 주기적인 프로그램 등을 통해 발생한다. 이는 상호 관계적인 프로그램이 지속적일 때 다양한 교류 유형으로 확장이 가능한 교류유형이다. 우발적 교류는 일상생활 내에서 마당, 로비, 복도 등 노인과 영유아의 이동 공간 등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교류로 노인·영유아의 동선 교차와 동선 교차 지점에 소규모 휴식 공간을 통하여 시설 내의 교류를 자연스럽게 촉진시킬 수 있다. 자발교류는 노인과 영유아의 의지로 인해 발생하는 교류로 일반적으로는 기획교류로 인해 친밀한 관계가 형성된 후 발생하는 교류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간접교류는 시청각적인 연속성이 가능하도록 노인 생활공간에서 영유아의 공간을 바라볼 수 있거나 그 반대의 상황으로 시청각적으로 연속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표 1> 세대교류 유형*

교류유형	범례
직접 교류	기획교류: 운영자가 교류 프로그램을 기획해 발생하는 교류
	우발적교류: 일상생활 내 자연적인 만남이 발생하는 교류
	자발적교류: 노인(영유아)의 의지로 인해 발생하는 교류
간접교류	시청각적인 연속성이 발생하는 교류

2) 공간적 범위

세대교류는 교류가 일어나는 공간과 시간의 범위에 따라 그 유형을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공간의 차원에 따라 미시적, 중간적, 거시적 공간 범위로 나눌 수 있고, 교류 활동의 지속시간에 따라 계속적 교류와 일시적 교류로 나눌 수 있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공간 범위로는 노인시설과 보육시설이 복합된 시설로 '중간적 공간범위' 내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세대교류를 촉진시키기 위한 '계속적 교류'라고 볼 수 있다.**

<표 2> 세대교류 공간에 따른 공간적 범위

구분	범례
미시적 공간범위	- 특정한 장소(특히 친밀한 공간)에서의 세대교류 - 계속적 교류: 3세대 동거 가족에서의 손녀와 조부모 세대의 교류 - 일시적 교류: 근린지역에서의 영유아와 노인과의 교류
중간적 공간범위	- 주거시설과 같은 공간에서의 세대교류 - 계속적 교류: 3세대 교류 공생주택, 보육시설과 노인시설이 통합된 복합시설 - 일시적 교류: 과자가게의 할머니·할아버지와 영유아의 교류
거시적 공간범위	- 거리에서의 영유아와 노인의 세대교류 - 마을 만들기의 과정에서 생성된 세대교류를 위한 공간

III. 관계심리분석을 통한 세대교류공간의 상호 관계성

3.1 노인·영유아의 심리적 요소

(1) 노인·영유아 심리적 요소 도출

노인과 영유아의 심리적 요소를 도출하기 전에 노인과 영유아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를 살펴보았다. 노인에 대한 정의는 노년학회(1951)에서 인간의 노령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생리적, 심리적, 환경적 변화 및 행동의 변화가 상호작용하는 복합형태의 과정에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노인복지법의 기준으로는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영유아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하며, 아동의 발달은 출생 후 처음 3년간은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되기에 이 시기에 아동이 사회적, 물리적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이에 아래 <표 4>는 노인과 영유아 심리 요소를 분석한 선행 논문을 비교 분석 후 이를 바탕으로 노인·영유아의 공통적 심리적 요소를 도출하였다.

* (재) 박혜선, 노인복합시설 세대간 교류공간 계획에 관한연구, 연세대 박사학위, 2007.

** (재)안태운,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세대교류를 위한 3세대 이음터 운영모델 개발, 정책보고서 2011.

<표 3> 노인·영유아 공통적 심리적 요소 도출

노인 심리 요소	공통 요소	영유아 심리 요소
건강기능저하, 운동 동적 능력저하, 감각기능 저하, 반응속도 저하, 소화기능 저하, 면역력 저하, 신체의 변화에 따라 오랫동안 건강을 유지하려는 욕구가 강해짐	신체적	이동 능력, 조작적 능력, 모든 근육이 높은 수준까지 발달하면서 감각운동 기술 증가, 환경적, 지리적 여건의 기후, 풍토, 문화 등으로 신체의 영향을 많이 받음
우울 및 불안, 조울증, 반대공포증 등 정신 및 신경기능 쇠퇴함에 따라 자아존중감이 저하되면서 의존성이 강해지며, 자기표현과 성취감의 기회를 갖고 싶어함	정서적	소집단 활동 선호, 여러 가지 감정 형성, 인내와 끈기, 몰입, 자아통제성 형성 중 자신 및 정서를 이해함, 가족과 사회의 도덕적 규칙을 내면화하며 내면화된 규칙에 따라 행동을 수행함
가정과 사회에서의 활동과 역할 상실에 따른 사회적 기능 수행 저하, 의로움 및 고독, 경제적 능력 저하, 젊은 세대와의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해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존경받으려는 욕구가 생김	사회적	신뢰와 친밀성, 새로운 환경과의 긍정적 상호작용, 개방성, 적극성, 관계지향형 등으로 타인과의 관계에 거리낌 없이 쉽게 친해지고, 사회에서의 대인관계의 기술 및 개념을 배우면서 정체성 발달함
기억능력 감퇴, 주의력 감소, 지남력 상실, 시공간 기능장애, 오감기능 저하,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여 기억으로 저장하는 능력이 감퇴 등으로 인한 인지 기능 감소함	인지적	호기심, 탐색능력 발달, 색을 구별 능력 발달, 오감의 자극을 받아들임, 사물의 부분적인 특성에 관심을 갖는 등 구별하는 능력이 생기면서 자의식이 발달함에 따라 다양한 지식을 획득하고 사고력을 증진시킴

(2) 세대교류 효과와 공통된 심리의 연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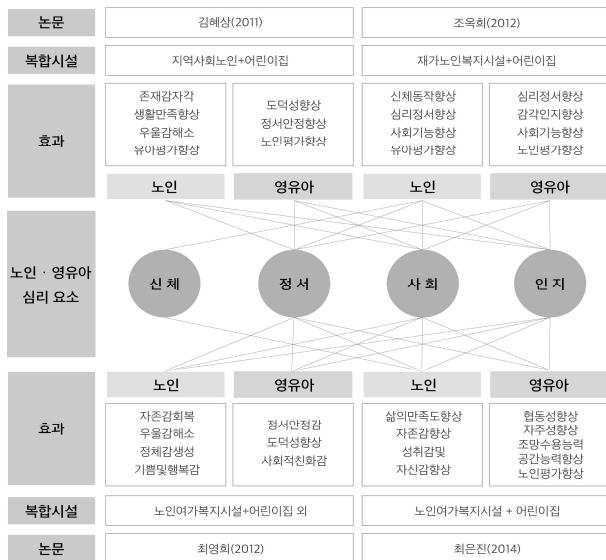


그림 2. 노인·영유아 관계심리요소 종합표

세대교류 프로그램을 실시 후 나타나는 심리적 효과를 분석한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앞선 노인·영유아의 심리적 공통 요소와 함께 상호 간 연계성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세대교류 프로그램 진행 후 신체, 정서, 사회, 인지와 같은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이 발생하였고, 이는 공통된 심리 요소와의 상관성을 나타냈다. 이러한 교류는 세대 간 인식 개선뿐만 아니라 심리적 지원 및 상생의 목적에 도달하는 데 성공적이라는 선행 연구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세대교류에 대한 필요성과 공간의 효과성은 지속적으로 입증되는 반면 일시적인 운영에 그쳐 지속

적인 효과를 얻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세대교류를 위한 지속 가능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돌봄 공간의 필요성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3) 세대교류 선호도 설문조사

본 설문은 국내 노유자시설 이용자 대상으로 어르신(50세 이상)과 영유아(만 6세까지 어린이)를 둔 학부모 두 그룹으로 나눠 전국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상세 조건으로는 미래시점 사용자인 50세 이상부터 현재 시점 사용자인 60세 이상 기준으로 총 210명 설문을 진행하였고, 영유아는 만 6세까지의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총 210명의 설문을 진행하여 총 420부를 회수하였다. 조사 방법은 전면 URL 발송 배포 방법으로 조사 기간은 2022년 12월 15일~22일의 8일간 실시되었다.

<표 4> 일반적 특성

항목	일반적 특성					
	노인			영유아(학부모)		
	구분	N(명)	%	구분	N(명)	%
성별	① 남자	79	38	① 남자아이	96	46
	② 여자	131	62	② 여자아이	114	54
연령	① 50대	100	48	① 1살	25	12
	② 60대	96	46	② 2살	41	20
	③ 70대	11	5	③ 3살	59	28
	④ 80대	3	1	④ 4살	57	27
	⑤ 90대 이상	0	0	⑤ 5살 이상	28	13
직계가족 유무	① 손주가 있다	131	62	① 조부모님이 있다	186	89
	② 손주가 없다	79	38	② 조부모님이 없다	24	11
가족 외 교류유무	① 있다	113	54	① 있다	89	42
	② 없다	97	46	② 없다	121	58
가족 외 교류장소	① 마을복지회관	14	12	① 마을복지회관	5	6
	② 경로당	21	19	② 경로당	12	13
	③ 놀이터	28	25	③ 놀이터	39	44
	④ 공원	43	38	④ 공원	28	31
	⑤ 기타	7	6	⑤ 기타	5	6

일반적 특성 분석 결과, 노인은 손주 여부에 따라 가족 외 아이들과의 교류 발생 또한 비슷하게 일어났지만, 영유아는 조부모님이 90%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외의 노인과의 교류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교류가 일어나는 공간으로는 야외공간인 공원, 놀이터 등으로 노인과 영유아가 일상생활 내의 자연스러운 교차가 일어나는 공간 주변에 세대교류 목적성을 갖은 새로운 실내 공간 계획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연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5> 세대교류 공간에 대한 인식 결과

항목	세대교류 공간에 대한 인식 조사					
	노인			영유아(학부모)		
	구분	N(명)	%	구분	N(명)	%
세대교류 효과인식	① 정확하게 알고 있다	41	19	① 정확하게 알고 있다	14	7
	② 대충 알고 있다	119	57	② 대충 알고 있다	116	55
	③ 모른다	46	22	③ 모른다	71	34
	④ 전혀 모른다	4	2	④ 전혀 모른다	9	4
	⑤ 기타	0	0	⑤ 기타	0	0
세대교류 방문여부	① 적극적으로 방문할 의향이 있다	42	20	① 적극적으로 방문할 의향이 있다	18	10
	② 가능한 방문하고 싶다	139	66	② 가능한 방문하고 싶다	70	42
	③ 별로 방문하고 싶지 않다	26	12	③ 별로 방문하고 싶지 않다	70	42
	④ 전혀 모른다	3	2	④ 전혀 모른다	8	5
	⑤ 기타	0	0	⑤ 기타	2	1
시설 간복합 에 대한 인식	① 매우 좋다	64	30	① 매우 좋다	24	11
	② 좋다	94	45	② 좋다	71	34
	③ 상관없다	46	22	③ 상관없다	87	22
	④ 싫다	6	3	④ 싫다	27	3
	⑤ 매우 싫다	0	0	⑤ 매우 싫다	1	1

세대교류에 대한 인식 조사 분석 결과, 노인과 학부모 대다수가 세대교류 공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노인보다 학부모의 요구도가 적은 것이 확인되었으며, 상호 간 인식 여부가 교류 공간 방문 여부와도 상관관계가 있었다. 따라서 노인과 영유아에게 미치는 심리적 효과를 알림으로써 세대교류 공간 인식 변화와 세대교류 공간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표 6> 세대교류 공간 방향성 결과

항목	세대교류 공간 방향성 조사					
	노인			영유아(학부모)		
	구분	N(명)	%	구분	N(명)	%
교류빈도	① 매일	26	12	① 매일	10	5
	② 주3회	65	31	② 주3회	35	16
	③ 주1회	83	40	③ 주1회	109	52
	④ 월2~3회	20	9	④ 월2~3회	31	15
	⑤ 월1회	16	8	⑤ 월1회	25	12
교류 프로그램	①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활동하기	102	29	① 노인분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활동하기	73	29
	② 아이들과 함께 식사하 고 산책	93	26	② 노인분들과 함께 식사 하고 산책	88	26
	③ 노인의 지혜와 경험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기	68	19	③ 노인의 지혜와 경험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기	62	19
	④ 아이들과 텃밭 가꾸기 등의 원예활동하기	88	25	④ 노인분들과 텃밭 가꾸 기 등의 원예활동하기	77	25
	⑤ 기타	2	1	⑤ 기타	0	0
교류유형	① 기획교류	110	33	① 기획교류	67	24
	② 우발적교류	101	31	② 우발적교류	75	27
	③ 자발적교류	60	18	③ 자발적교류	105	37
	④ 간접교류	60	18	④ 간접교류	34	12
	⑤ 기타	0	0	⑤ 기타	0	0
배치유형	① 분동연결형 + 별도출 입구 + 별도교류공간	62	26	① 분동연결형 + 별도출 입구 + 별도교류공간	77	35
	② 합동연결형 + 별도출 입구	102	43	② 합동연결형 + 별도출 입구	88	40
	③ 합동연결형 + 동일출 입구	51	21	③ 합동연결형 + 동일출 입구	43	19
	④ 분동분리형 + 동일출 입구 + 로비만 공유	24	10	④ 분동분리형 + 동일출 입구 + 로비만 공유	14	6
	⑤ 기타	0	0	⑤ 기타	0	0
노인시설용 도복합가능 범위	① 노인주거복지시설	52	21	① 노인주거복지시설	36	15
	② 노인의료복지시설	45	18	② 노인의료복지시설	60	26
	③ 노인여가복지시설	138	55	③ 노인여가복지시설	125	53
	④ 재가노인복지시설	16	6	④ 재가노인복지시설	12	5
	⑤ 기타	1	1	⑤ 기타	1	1

세대교류에 공간에 대한 인식 조사 분석 결과, 시설 복합화에 관하여 노인과 학부모 모두 50% 이상이 긍정 의사가 나타났으며, 세대교류 공간 선호 유형은 평면유형으로는 합동연결형+별도출입구, 단면유형으로는 합동적층형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노인시설 용도 중 유아시설과 복합 가능한 범위는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순으로 우리나라 정서에 맞는 시설을 두 시설로 추릴 수 있었다. 따라서 국내 세대교류 공간 설치를 위해서는 각 시설이 독립된 출입구를 통해 각 시설의 고유기능을 유지하면서 별도의 공유 공간을 통해 동선을 교차시키는 등의 적절한 교집합 형태의 물리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4) 공간의 상호 관계성 분석

공간 유형은 노유복합시설 국내외의 사례의 공간구성 현황 및 특성을 분석한 선행논문을 바탕으로 각 시설 간의 연계성, 교류공간 위치, 출입구 등을 파악하기 위함에 있다. 그 결과, 각 논문 저자가 선정한 세대교류의 기회를 증가시킬 수 있는 공간 유형들의 공통된 특징을 유추하여 평면 유형(출입구 위치 포함), 단면 유형으로 분류하여 다음과 같이 종합하였다.

<표 7> 평면의 상호 관계적 유형

구분	공간 유형	특징
합동공유형 + 동일출입구	노인+교류+유아 ↑	합동형태 동일출입구 형태로, 각 시설의 고유 기능의 성격은 약하지만, 모든 공간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직접, 간접유형의 모든 교류가 모든 교류가 활발히 일어난다.
합동연결형 + 별도출입구	노인 교류 유아 ↑ ↑	합동형태 별도출입구 형태로 각 시설의 고유기능은 유지되지만, 시설 내에 마련되어 있는 교류공간을 통해 다양한 교류 범위가 확장된다.
분동분리형 + 별도출입구	노인 교류 유아 ↑ ↑	분동형태 별도출입구 형태로 각 시설의 독립성이 뚜렷한 구조이다. 이 구조는 실외공간 면적, 위치에 따라 교류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합동분리형 + 별도출입구	노인 유아 ↑ ↑	한 건물 내에 설계된 합동형태로 보이지만, 출입과 분리과 내부 또한 분리되어 교류공간이 전혀 없는 형태로 운영자에 의한 기획교류 외에는 세대교류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형태이다.

<표 8> 단면의 상호 관계적 유형

구분	공간 유형	특징
합동혼재형	노인+교류+유아	합동혼재형은 모든 층에 교류공간이 분포되어 있어 건물 내 모든 공간에서 교류가 발생하는 형태이다.

합동적층형		저층부에 교류공간이 집중된 형태로, 상층부와와의 경계로 운영자와 이용자의 의지에 따라 교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는 유형이다.
분동병렬형		노인시설과 영유아시설이 별도의 건물로 되어있으면서 외부에 마련된 교류공간이나 연결 통로를 통해서 교류가 발생하는 유형이다.
합동병렬형		노인시설과 영유아시설이 한 건물 내에 설계되었지만, 내·외부에 교류공간이나 연결 통로가 전혀 없는 형태이다.

IV. 세대교류공간 사례분석

본 연구에서는 노인·영유아의 세대교류를 목적을 지닌 시설에 대해 국내·외 사례를 조사·분석하였다. 분석 내용으로는 공간구성, 공간 유형, 교류유형 중심으로 파악해 국내 실정에 맞는 상호 관계성인 공간 유형을 제언하고자 한다.

<표 9> 국내외 노유복합시설 조사대상

구분		시설명	복합시설	설립연도
국내	한국	뿌리와 새싹	노인여가복지시설+어린이집	2008년
국외	일본	Slow life monzen + Niko niko children's	노인의료복지시설+어린이집	2007년
	일본	Villa Shiroyam	노인의료복지시설+어린이집	2012년
	프랑스	EHPAD et crèche	노인의료복지시설+어린이집	2014년

4.1 국내·외 사례 분석

<표 10> 국내 사례

뿌리와 새싹			
복합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어린이집		
소재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동 5길		
설립연도	2008년		
수용인원	노인 약 90명 / 영유아 약 90명		
규모	지상 2층		
대지면적	731.30㎡		
건축면적	416.29㎡		
연면적	706.82㎡		
공간구성	평면구성		
	① 교류 영역 ② 노인의료복지시설 ③ 어린이집		
공간유형	평면유형		
	분동병렬형		
교류유형	기획교류	우발교류	자발교류
	●	●	●
소결	우리나라 최초의 세대교류 시설로 규모는 작지만, 건물 사이에 기획된 교류 공간을 통해 각 시설의 독립성과 연계성을 적절하게 유지했다. 내부에 교류 공간이 없어 한 개의 실이 두 가지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긴 형태의 배치로 인해 일부 실 외에는 자연스러운 교류는 어려운 구조이다. 하지만 운영자들이 주변 녹지공간과 각 교류실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으며, 세대교류 활동을 진행하며 기획교류를 지속적으로 발생시킴으로써 노인인과 영유아의 친밀감 형성을 통해 자발교류와 우발교류까지 확장되어 일어나고 있는 대조적인 사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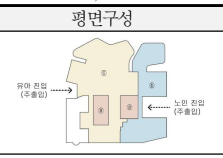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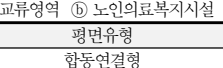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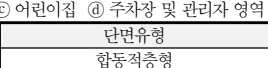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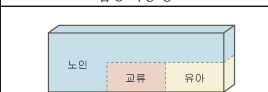
<표 11> 국외 사례

Slow life monzen + Niko niko children's			
복합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어린이집		
소재지	Joetsu, Niigata, Japan		
설립연도	2007년		
수용인원	노인 약50명 / 영유아 약222명		
규모	지상 4층		
대지면적	6,241.46㎡		
건축면적	4,365.76㎡		
연면적	- ㎡		
공간구성	평면구성		
	① 교류영역 ② 노인의료복지시설 ③ 어린이집 ④ 관리자영역		
공간유형	평면유형		
	합동연결형		
교류유형	기획교류	우발교류	자발교류
	●	●	●
소결	이 공간은 큰자 매스 배치 안에 노인, 교류, 유아공간이 교차로 배치되어 있어 모든 공간이 서로 마주 보며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각 시설은 교류 공간 방향으로 모든 면이 유리창 마감을 통해 각 실 내부까지 시정각적인 연속성까지 끌어내 간접교류를 포함한 모든 교류유형이 일어나도록 유도했다. 하지만 지상 2~4층 이용자들은 공간 단절로 인해 직접적인 교류를 위해서는 지상 1층으로 내려와야만 교류가 발생된다는 점이 아쉽다. 따라서 지상 1층 외 공간과의 단절을 막기 위해 수평적인 교류공간뿐만 아니라 내부 보이드 공간 등을 활용해 수직적인 연결 공간이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표 12> 국외사례

Villa Shiroyam			
복합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어린이집		
소재지	Ayase, Kanagawa, Japan		
설립연도	2012년		
수용인원	노인 약136명 / 영유아 약20명		
규모	지하 2층, 지상 6층		
대지면적	3,430.97㎡		
건축면적	- ㎡		
연면적	5,909.95㎡		
공간구성	평면구성		
	① 교류 영역 ② 노인의료복지시설 ③ 어린이집		
공간유형	평면유형		
	합동연결형		
교류유형	기획교류	우발교류	자발교류
	●	●	●
소결	건축물 형태는 L자 형태이며, 각 시설 출입구 외 주 출입구를 통해 각 시설로 진입이 가능하다. 건물 중심에 광장, 마당, 테라스가 자리 잡고 있는데 이 공간들은 다목적실과 인접해 있어 이곳을 오픈해서 대공간으로 활용하면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며 세대교류가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지상 1층이 위치한 어린이집과 재활실 외 모든 공간이 공용공간으로 오픈되어 있지만, 영유아가 실제로 이용하는 시설은 극히 일부적이라는 점이 아쉽다.		

<표 13> 국외사례

EHPAD et crèche		
복합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어린이집	
소재지	Notre-Dame de Bon Secours, Paris	
설립연도	2014년	
수용인원	노인 98객실 / 영유아 약64명	
규모	지하 2층, 지상 6층	
대지면적	14,200 m ²	
건축면적	2,700 m ²	
연면적	11,772 m ²	
공간 구성	평면구성	평면구성
		
공간 유형	평면유형	단면유형
	합동연결형 	합동적층형 
교류유형	기획교류	우발교류
	●	○
소결	자발교류	간접교류
	○	●
기존 종합병원 사이트 중 일부 건물을 철거하고, 가장 취약한 계층을 위해 주거용 의료 시설과 어린이집으로 전환해 재탄생했다. 이 시설은 합동연결형이지만 노인시설과 어린이집의 영역이 뚜렷하게 분리되어 있다. 또한 두 시설이 공존하는 1층 내부에는 교차 동선이 발생하는 교류공간이 없으며, 출입구 위치도 정반대에 위치하여 같은 건물 내에 두 시설이 있지만, 지상 4층에 마련되어 있는 대형 테라스 외 교류공간은 어린이집과의 물리적 거리가 멀어 기획교류 외에는 교류가 어렵다. 즉 두 시설이 합동형이더라도 두 시설의 이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과 별도의 교류 공간을 같은 층에 배치하여 두 이용자의 동선을 교차시키지 않는다면 자연스러운 세대교류가 감소되는 것을 알 수 있다.		

4.2 사례분석의 종합

<표 14> 사례분석의 종합

구분		사례1	사례2	사례3	사례4
평면 유형	합동공유형+동일출입구				
	합동연결형+별도출입구	●	●	●	●
	분동분리형_별도출입구				
	합동분리형+별도출입구				
단면 유형	합동혼재형				
	합동적층형		●	●	●
	분동병렬형	●			
	합동병렬형				
교류 유형	기획교류	●	●	●	●
	우발적교류	①	●	①	○
	자발적교류	①	●	●	○
	간접교류	①	●	●	●

사례 분석 결과, 평면 유형은 합동연결형+별도출입구 유형이 나타났으며, 단면 유형으로는 합동적층형이 나왔다. 이는 앞서 진행한 설문조사와 선행 논문 분석 결과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한 건물에 두 시설이 배치되어 있더라도 교류 공간 위치에 따라 교류유형의 범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V. 결 론

본 연구는 노인·영유아의 심리적 요인과 국내 설문조사와 선진사례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이를 통한 세대교류의 필요성과 이를 실현하기 위해 효과적인 세대교류 공간의 상호 연계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 논문을 통해 노인과 영유아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적인 주요 심리적 요소를 신체, 정서, 사회, 인지의 4개 영역으로 추출하였다. 또한 세대교류 프로그램 참여 후 나타나는 심리 변화와 연결해 보았을 때 상호 관계적 요소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곧 노인과 영유아의 상호 적극적인 교류가 심리적 변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설문조사를 통해 노인과 영유아의 학부모 모두 세대교류를 통한 심리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류공간 방문 경험 여부는 세대교류 공간 인식 여부와도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세대교류 공간 방문 여부에 대하여 50% 이상 긍정적 의사를 나타냈으며, 시설 간 복합 가능 범위로는 노인복지시설 중에는 노인의료복지시설과 노인여가복지시설, 영유아시설 중에는 어린이집과의 복합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영유아와의 원활한 세대교류를 위해서는 노인의 건강 상태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므로, 건강 상태에 따른 공간 분리와 같은 설계적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국외사례를 통해 공간유형과 교류유형을 도출한 결과, 가장 바람직한 공간 유형은 평면 유형 중 합동연결형+별도출입구 유형, 단면 유형 중 합동적층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설문조사 결과 및 선행 논문 결과와도 일치하는 결과로, 같은 건물을 공유하면서도 출입구가 별도로 있어 각 시설의 고유 기능은 유지되는 사생활 침해가 적은 유형으로 국내 정서와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류공간의 배치

위치가 세대교류의 범위와 빈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교류공간이 주요 생활공간과 층이 다르거나 분리될 경우, 교류빈도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따라서 교류공간을 각 시설의 주요 활동 공간과 인접한 위치에 배치하고, 수평·수직적으로 연속되는 동선을 계획함으로써, 자연스러운 물리적 환경 조성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세대교류 공간의 확대 방안이 단순히 물리적 공간 제공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대 간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 젊은 세대의 부모들에 대한 선입견 제거와 노인시설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유도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세대가 교류기회를 확보함으로써 다양한 각도에서의 사회적 인식 변화와 여건 개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점점 증가하는 노인복지시설과 점차 줄어드는 영유아시설의 복합화를 통해, 부지 확보 문제 및 재정적인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가능성이 보여진다. 나아가 이러한 복합시설이 지역사회 거점 공간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면서 노인·영유아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대의 교류로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본 연구는 핵가족화, 사회구조 변화로 인한 세대 간 단절과 고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인·영유아의 심리적 변인을 분석하여 효과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실정에 맞는 세대교류 공간의 계획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노인·영유아의 관계를 통한 심리학적 변인의 분석을 통하여 공간 간의 상호 연계성의 중요함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현재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지속적이고 중장기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더 나아가 좀 더 많은 공간적 사례 분석과 관계 심리학, 간호학의 패러다임인 좋은 돌봄을 위한 치료적 환경 구축 측면의 다양한 심층적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

루어질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1] 草野篤子. 秋山博介編,, 現代のエスプリNO.444 インタージェネ レーション: コミュニティを育てる世代間交流, 至文堂, 2004.
- [2] 최지현, “관계심리분석을 통한 세대통합형 노유복합시설 계획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사학위*, 2024년
- [3] 박혜선, “노인복합시설 세대간 교류공간 계획에 관한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 2007년
- [4] 박혜선, “일본 노유복합시설의 세대간 교류공간계획에 관한 연구”, *韓國醫療福祉施設學會誌*, 제15권, 제3호, 2009년
- [5] 임수현, “노인 주거·의료복지시설에 관한 판례 분석: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 석사학위*, 2016년
- [6] 박가연, “법·제도 변천에 따른 어린이집 계획 변화 분석 연구”, *서울시립대 석사학위*, 2016년
- [7] 정민모, “노인과 영유아의 교류 증진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 공간계획요소에 관한 연구”, *영남대 석사학위*, 2018년
- [8] 정숙희, “격대교육의 논리와 유로(幼老)복합시설 개발 연구”, *국민대 박사학위*, 2018년
- [9] 김유신, “노인복지와 노인복지시설에 관한 법적 연구”, *대진대 석사학위*, 공공정책 대학원, 2019년
- [10] 안태운,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세대교류를 위한 3세대 이음터 운영모델 개발, 정책보고서 2011년
- [11] 허새나, 다(多)세대 사회의 세대통합:세대공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희망제작소, 2016년

저자 소개



최지현(정희원)

2024년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건축디자인과 석사 졸업
2024년~현재 에이앤유디자인그룹

<주관심분야 : 세대교류, 건축디자인,
유니버설 디자인>



최연숙(정희원)

~현재 대원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주관심분야 : 치유환경, 치유공간,
인간 적응심리>